# 성큼 다가온 일상…'가정의 달' 들뜬 유통가

##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반값 할인·경품 행사 다양
## 홍삼제품·안마의자 등 '효도 선물' 인기…이마트, 관련 매출 증가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직원들이 '가정의 달' 분위기를 돋울 다양한 꽃바구니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어버이날'(8일)과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가정의 달 수요를 잡기 위한 유통가의 채비가 분주하다.

지역 백화점은 인기 효도 선물로 꼽히는 건강기능식품과 안마기 할인전에 나섰고,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가족 모임에 활용할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선물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10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취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주위에 공유할 수 있다. 30초 가량 진행되는 설문에서는 옷장 정리 방식과 온라인 쇼핑·할인에 임하는 자신만의 방법 등을 묻는다. 신세계는 취향 결과를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줄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행사장과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카네이션 할인 행사를 오는 8일까지 벌인다.

생화 바구니 뿐만 아니라 꽃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상품도 만날 수 있다. 오래도록 향기를 간직할 비누꽃도 마련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홍·인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안마의자를 선보이고 있다.

지하 1층 정관장 매장은 오는 15일까지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 혜택을 돌려주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천제명 매장은 7~8일 이틀 동안 홍삼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벌인다. 영양제 매장에서는 비타민제품을 대상으로 15% 사은행사를 적용하고 오는 8일까지 품목별 할인을 펼친다.

같은 점포 9층에 있는 바디프랜드 매장은 5월 한 달 동안 한정판 안마의자를 할인가에 판매한다.

2층 골든듀 매장은 조선시대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기념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오는 8일까지 선착순 예약 판매하며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수익금 일부를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를 위해 후원할 예정이다. 다이아몬드 선별·가공에는 대한민국 명장 손광수씨가 참여했다. 메달 금 중량은 30.7g이며 다이아몬드는 총 0.1캐럿이다.

이마트는 '어버이날'을 기념한 할인전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인기 홍삼제품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35% 할인해주고, 행사 품목을 2개 이상 구매하면 '반값' 할인을 적용한다.

전국 이마트 67곳에 입점한 정관장 브랜드 상품은 최대 40% 저렴한 금액에 만날 수 있다. 구매 금액대별로 최고 5만원 상당 신세계상품권도 준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1인용 안마기부터 400만원대 고가 안마의자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이외 면도기와 화장품 등을 선물 기획상품으로 선보인다.

이마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홍삼제품 매출은 43.8% 늘었고, 유산균제품은 29.0% 증가했다.

올해 들어 1~4월 이마트에서의 안마의자 객단가(1인당 고객 평균 매입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소형 안마기 매출이 전년보다 약 20% 이상 늘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오는 25일까지 '가정의 달' 선물을 한데 모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안마의자와 한우, 고급 과일 꾸러미 등 55종 상품이 소개됐다. 매장에서 책자에 담긴 상품을 주문하면 원하는 장소로 3일 이내 배송받을 수 있다.

책자 상품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한우·과일 바구니 등 신선식품은 30%, 건강가전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대형마트 시식 재개에 식품 판매량 '쑥'

### 롯데마트 비빔면 매출 70%↑

대형마트 시식이 시작된 한 주 동안 식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식품 매출은 2주 전(4월11~17일·의무휴업 주말 제외)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중에서 시식대에 주로 오른 제품들의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같은 기간 동안 냉동만두 매출은 30% 증가하고 계절과일 25%, 수입육 40%, 비빔면 70% 등 매출이 늘었다.

시식을 다시 시작한 첫 주말인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식품 매출은 2주 전보다 15% 증가했다.

시식이 활성화되고 각 식품회사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대형마트 식품 매대 분위기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부터 롯데마트는 '소중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활력충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 할인 행사를 벌인다.

오는 9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우를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캐나다산 돼지 삼겹·목심, 완도 활전복, 제주 은갈치, 칠레산 구이용 연어 등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마트, '한돈데이' 돼지고기 40% 할인

### 7일까지 순금 경품행사도

이마트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돼지고기 모든 부위를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사흘 동안 이마트는 행사 카드로 국내산 일반 돈육 모든 부위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0%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마트 한돈데이'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은 삼겹살과 목심 뿐 아니라 앞·뒷다리, 갈비, 등심, 사태, 등갈비, 특수부위 등이 해당한다.

이마트는 이번 사흘 동안 준비한 행사 물량이 400t으로, 평소 판매량의 3~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돼지고기 경매가격(탕박·1kg)은 6163원으로, 같은 달 1일 가격(4424원)보다 39% 가량 상승했다. 전년 같은 날(4901원)보다는 26% 올랐다.

이마트와 한돈자조금은 오는 7일까지 한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돼지 10돈과 5000~10만원 상당 이마티콘(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벌인다.

'한돈데이' 행사 상품 2만원 이상을 구매하고 이마트 모바일 앱으로 행사에 응모하면 된다.

이마트는 돼지고기와 함께 즐기기 좋은 모둠쌈, 파채, 버섯 등 채소도 할인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린이 시네마데이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지난 3일 어린이 50명을 초청해 '시네마데이'를 진행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 2016년부터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상생활동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